

## 진도개에서 자연 발생한 다발성 모낭 상피종(Trichoepithelioma)

이슬비, 조경오, 박형선, \*김종은, 박남용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병리학 교실

\*삼육대학교 응용동물학과

10살된 암컷 진도개에서  $7.0 \times 7.0 \times 2.5$  cm와  $5.0 \times 4.0 \times 2.0$  cm 크기의 종괴가 왼쪽 어깨와 흉부의 아래부위 피하에서 각각 관찰되었다. 육안적으로 종괴는 주위 조직과 잘 구분되어 있었고 절단면에서는 화농성 삼출물이 관찰되었다. 병리 조직학적 소견 상 모낭 유래의 낭성 구조물들이 특징이었는데 이들의 벽은 모낭을 이루는 세 가지 부분인 누두부(infundibular), 협부(isthmus), 아래구역(inferior segment)과 유사하게 분화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낭성 구조물들은 모낭의 누두부 유래로 이들의 벽은 모낭의 누두부와 유사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종양을 이루는 구조물 내강의 내용물 대부분은 구조물의 벽을 이루는 세포성분들이었으며 누두부 유래의 낭성 구조물의 내용물은 층판의 케라틴이며 협부 유래의 구조물의 내강 내용물의 대부분은 무구조물성 케라틴이었다. 반면 아래구역과 유사한 구조물의 내강에서는 그림자세포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물 중에서는 한 개의 낭성 구조물 안에 두 가지 이상에서 유래한 형태가 융합되어 내강의 내용물 또한 유래한 부위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존재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소견을 바탕으로 본 증례는 다발성 모낭상피종(trichoepithelioma)으로 확인되었으며 국내에서는 그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